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2023 선교구 성가제, 온 성도가 하나 된 축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전인 동탄광림교회가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12월 3일 저녁예배에 광림의 모든 성도가 본당 대예배실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제23회 선교구 성가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음악위원회(위원장 장대진 장로)가 주관한 성가제는 본당 10개 선교구와 광림남교회 2개 선교구,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등 14개 팀의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아름다운 찬양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감사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한 채 성가제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 있고 웅장한 찬양의 소리가 본당에 가득 찼다.

성가제가 시작되자 선교구 연합회장들은 선교구 기를 들고 힘차게 입장하며 본격적인 성가제의 시작을 알렸고, 이세원 권사는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갔다. 선교구가 찬양을 하기 전 각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가 함께 만든 응원영상 볼 때 많은 성

도들이 즐거워했고 해가 갈수록 신선한 아이디어와 사랑을 담은 메시지 전달이 모두를 웃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충분했다. 성도들의 찬양이 끝난 후 부목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고, 앵콜곡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불렀다.

이번 성가제의 심사기준은 음악성 60%, 참여도 20%, 질서 20%로 본당과 지교회 성가대 9명의 지휘자가 음악성의 심사를 맡았다. 또한 성도들의 참여도와 질서는 목회행정기획실 조성한 목사와 남·여·실업인선교회장, 음악위원장과 음악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공정한 심사를 했다.

14개 팀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격려상, 장려상, 소망상이 골고루 수여되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올해 7월에 봉헌된 동탄광림교회가 대상에 호명되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내가 상을 받은 것같이 기뻐하며

축하의 합성을 올렸다.

김지후 어린이(동탄광림교회)는 '위대한 음악'이란 제목의 시를 지어 "음악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네"라면서 대상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다.

금상 6선교구, 은상 9선교구, 동상 2선교구, 인기상은 3선교구가 수상했다. 격려상은 1선교구, 8선교구, 남교회 2선교구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5선교구, 남교회 1선교구, 북교회가 수상했다. 소망상은 4선교구, 7선교구, 10선교구가 수상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녁 1,700여 명의 성도들이 무대에 올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장대진 장로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수준 높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행사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목사님, 선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과 많은 후원을 해주신 남선교회총연합회, 여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와 선교구 연합회장님,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방송실과 아이 돌봄 서비스로 애써준 교회학교와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소현수기자

2 광림의 강단
믿는 자와 함께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미래

3 광림 스토리
광림세미나하우스 새단장 감사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김선도 감독님 1주기 추모예배

6 목회현장
2023 경조총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믿는 자와 함께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미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이며,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러스트(Trust)라는 책에서 “타인을 믿을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사회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진실과 겸손과 성실을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직 갈렙만 남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신뢰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2절),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7절) 이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와 창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가 여는 복된 미래

모세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에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미래, 광야 생활의 지혜 등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미래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5절)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호수아 1:1-9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부족함, 연약함 등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 능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자

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그 약속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지식과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셋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는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목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현실화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은 영감적 낙관주의에 근거합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실수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넷째,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자질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목표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목표는 이기적인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올바른 열정과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으며,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본문 9절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 새단장 감사예배

11월 24일, 말씀 연구와 묵상을 위한 영성 훈련 장소로 거듭나



광림 국립수목원 옆에 위치한 광림세미나하우스(위원장 양원식 권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1월 24일(금) 오전 11시, 새단장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95년 개관한 세미나하우스는 그동안 세계 감리교 감독 회의를 비롯 아시아감리교대회, 월드비전 국제이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열어 목회자들의 성경 공부와 말씀 연구 장소로 사용되었다.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익투스 영성수련회, 선교구 기도회, 청소년 수련회 등 다양한 영성 훈련의 장소로 활용됐다.

시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 후 25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에 대예배실을 먼저 리모델링하여 봉헌하였고,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월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설립 당시 106개, 약 45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숙소시설을 71개, 2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를 줄이는 대신 객실을 넓히고, 크기를 대(4~5인실), 중(2~3인실), 소(1인실)로 다양화했다. 10개의 세미나실, 휴게실, 제

력 단련실을 새로 단장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먼저 김선도 감독님이 설립한 세미나하우스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감독님은 교회가 전인적인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광림수도원은 영적인 곳, 비전랜드는 다음세대를 위한 활동적이며 육적인 곳인 반면 세미나하우스는 정신적인 장소로 여겼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만 추구하던 때에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세운 곳이 세미나하우스”라고 했다.



이어 ‘날마다 강론하리라’(행 19:9)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한 것 같이 지금의 세미나하우스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 “첫째,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변화하면서 영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구별되고 선별된 장소가 되어야 하고 둘째, 믿음의 깊이를 깊게, 그 폭을 넓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단 신앙이 많았던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은 2년 가까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초기 역압받던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공인된 국교로 되기까지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성경 공부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했다.

감사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본관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가진 후,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 및 장식품들을 감상하였으며 새단장 이후 쾌적해진 숙소 등 본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희망의 탑에 성탄 축하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본당 대예배실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다.



남선교회 사랑의 쌀 전달식
남선교회총연합회는 12월 10일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목회세미나
12월 5일~7일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하반기 목회세미나가 열렸다.

담임목사 동정



- 12/3 선교구 성가제
- 12/5~7 하반기 목회세미나
- 12/8 교계 지도자 모임
- 12/9 사단법인광림 이사회
스데반 가족 페스티벌
- 12/10 성서주일
사랑의 쌀 전달식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장천 김선도 감독님 1주기 추모예배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11월 25일(토), 광림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특송 곡이자 김선도 감독님께서 살아생전 즐겨 불렀던 찰스 웨슬리의 찬송 ‘어찌 날 위함이온 지를 따라 부르며 장천(杖泉) 김선도 감독님의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광림교인, 후배 목사,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광림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키며 평생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예수 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었다.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추모예배에서는 하얀 꽃 속에 둘러싸여 평안히 웃고 계신 김선도 감독님이 보였다.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는 “김선도 감독님은 51년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한국 교계를 이끄신 온유와 겸손의 종이셨다. 감독님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나가자”라고 기도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남겨 놓으신 것’(딤후 4:7-8)이라는 설교 말씀에서 “김선도 감독님의 삶은

충성과 헌신 그 자체였다. 의술을 배운 군의관이셨다가 공군 군목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셨다. 미국 웨슬린신학대학원에서 종교학 석사를 받으신 후 31년간 광림교회를 담임하면서 일평생 예수만 생각하며 사셨고 그 위대한 족적을 온 세계에 선교의 역사로 남겨 놓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모 영상에서는 감독님의 생전 설교와 목회 현장이 방영되면서 모두가 숙연해졌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교수는 조가로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을 불러 고인을 추모했다.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와 박웅

렬 장로(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장)는 추모사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마음에 담고 살아온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자 세계 감리교회의 큰 별이셨던 감독님을 기렸다.

〈장천기념사업회〉 출범

추모예배에 이어 장천기념사업회 출범식에서 최이우 목사(장천기념회 이사장, 종교교회 원로목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뜻을 같이 하는 후배들이 장학 사업을 통해 한국교회 지도자 양성, 선교와 국제 구호를 통한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 전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축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목회자이신 김선도 감독님을 추모하며, 기념사업회 발족도 축하드린다. 서울시도 감독님처럼 약자와 동행하며 어려운 분을 세심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봉사관 5층 광림역사관 〈헤리티지&비전홀〉에는 김선도 감독님이 생전에 쓰던 설교 노트, 수집한 지팡이와 촛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감독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유병권 기자



2023 광림교회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

창립 70주년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경품 행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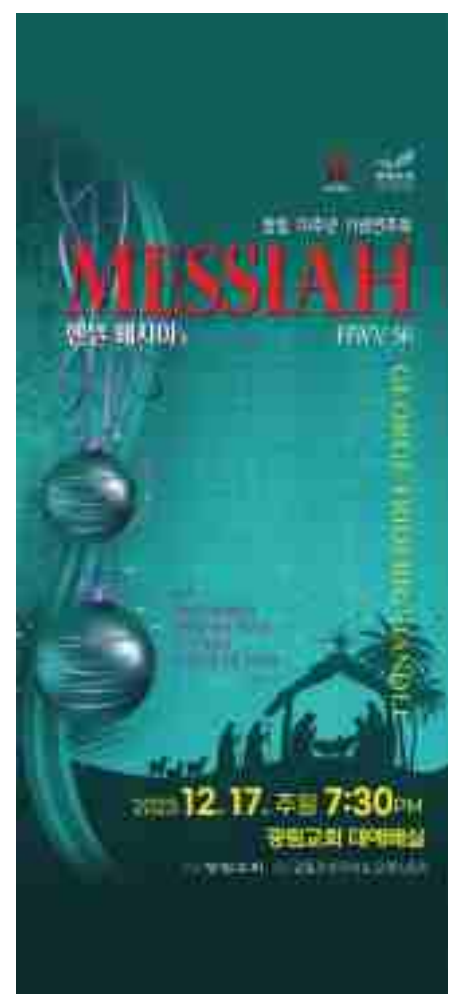
스테반선교회 가족들이 한데 모여 교제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 <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지난 9일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올 한 해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던 각 교구의 스테반선교회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은 광림교회 70주년에 걸맞게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졌다. 스테반 부부 찬양단의 여는 찬양으로 시작된 1부는 개회예배에 이어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현장의 열기를 높였다. 노래 맞추기 게임, 만보기 트위스트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스테반 가족들의 협동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물도 골고루 나눠 가졌다. 2부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진 3부는 A홀과 B홀 두 곳으로 나눠 진행됐다. A홀에서는 김정석 담임목사와 한정희 사모, 스테반 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콘서트 가 열렸다. B홀은 아이들을 위한 가스펠 매직쇼 공연과 마술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의 시간으로 인기가 높았다. 컨벤션홀 입구에는 선물을 가득 채겨온 산

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마련됐고, 에어바운스·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토크콘서트의 열기도 뜨거웠다. 그룹 ‘유리상자’의 멤버 이세준의 노래와 축하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담임목사와 함께 스테반 가족들이 허물없이 소통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송년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경품 추첨의 시간에는 장수돌침대·노트북·공기청정기·백화점 상품권 등 담임목사와 남선교회총연합회가 준비한 선물이 경품으로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남선교회총연합회 박기연 장로는 “2016년에 시작된 스테반 가족 페스티벌은 각 선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테반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 행사이다. 광림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반선교회는 40~52세 남성 성도들의 모임으로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는 출발점이자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스테반선교회를 응원했다.

한혜선 기자



청년부 LTS 가을학기 종강



크리스천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7)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은 경건도 분명히 훈련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하듯이 경건에 이르는 노력도 매일 꾸준하고 정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광림교회 청년부는 10월 7일(토)~11월 25일(토)까지, 8주간 LTS(LFC Training School)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은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LTS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후 각각의 장소에서 다양한

강의를 통해 경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학기 LTS에는 다양한 10개의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도록 돕는 J.D.C.(예수제자캠프)와 ‘성경 개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경과 고대 근동의 역사’, ‘이단을 바라보는 눈’ 등의 기독교 신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의사소통 코칭’과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 강의를 통해 신앙인의 건강한 대인 관계법을 배울 수 있었고 ‘8주 만에 찬양 기타 반주 마스터’, ‘내게 주신 미적 달란트 찾기’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파우는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LTS에서 ‘내게 주신 미적 달란트 찾기’ 강의를 진행한 김남주 자매는 “이번 가을학기 LTS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

한 감각들을 깨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발견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서로의 그림을 보며 아름다움을 나누었습니다. 각기 다르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LTS에서 ‘성경과 고대 근동의 역사’ 강의를 담당하 오민준 형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찾아보았던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장, LTS를 통해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광림교회 2024년도 캘린더

광림미술인선교회 회원들의 은혜로운 성화 작품으로

2024년 캘린더는 광림교회 미술인선교회 소속 아티스트 12명의 작품으로 제작되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는 미술인선교회의 헌신과 회원 작가들의 재능 기부로 성화 작품들의 데이터를 기증받아 캔버스에 디지털 실사 프린트로 출력해서 완성한 캔버스 액자들이 본당 지하 1층 복도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미술인선교회 작가들이 성경에 근거한 작품 설명과 성구와 함께 기독교 미술 작품을 전시하여 교회에 또 하나의 아트갤러리가 생긴 듯하다.

또한 세미나하우스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영성이 회복되는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데 선교 회원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영적 공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광림미술인선교회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개최한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 <TOLLE LEGE>에 출품되었던 작품들과 본당 지하 1층에 설치된 작품들로 구성된 달력은 1월 안자아, 2월 변영혜, 3월 서희진, 4월 조명애, 5월 임현규, 6월 최광대, 7월 조예선, 8월 홍림, 9월 이시원, 10월 김남주, 11월 정은선, 12월 이수자의 작품들이다.

광림미술인선교회는 광림교회의 미술인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선포와 신앙고백이 담긴 작품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미술 사역을 해 온 지 올해로 14년째이다. 매년 상반기인 4월에 부활절 기념전, 하반기인 11월에 추수감사절 기념 및 교회창립 기념전으로 매년 두 번의 정기전을 하고 있다.

미술인선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예술의 사명에 부름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창조성과 예술적 재능으

로 세상의 문화 예술을 정화시키며 헌신하는 건강한 지체이며 기독교 문화 공동체이다.

광림미술인선교회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인 2024년에 미술인선교회 회원 작품들로 교회 달력이 제작된 것을 회원들은 감사하며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024 광림교회 달력은 12월 25일 성탄절 선물로 전 교우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변영혜 기자



신앙 간증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2019년 서양화를 전공하며 대학교 4학년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무엇을 그릴까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던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지속되자 졸업작품으로 하려던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는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한 세심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미술인선교회 ‘물맷돌 프로젝트’ 청년 작가 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다고 느꼈던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신 사랑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나를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붙들고 계신 손에는 날 위한 희생의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음을,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죄에 빠져 있을 땐 훈계와 책망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혼자 누리는 삶에서 함께 나누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섬세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거니와”(시 86:7~8)



김남주 청년(1교구)

목회현장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잠비아

최성령 선교사(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2021년 'Kwanglim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NGO와 법인이 설립되어 잠비아 현지인들의 삶과 올바른 신앙의 확립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기독교가 국교라고 할 만큼 75%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미신과 주술사를 신봉하는 토속 신앙과 혼합주의에 빠져있어 올바른 신앙과 말씀의 지식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또한 중국의 자본 의존과 착취에 대한 상처, 정부와 기관의 부정부패, 무지한 여성관으로 인한 조혼 문제의 발생으로 미혼모 수의 많은 증가, 에이즈와 같은 성병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잠비아의 현실입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2022년 6월 15일 기공 예배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 5월 29일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이때 잠비아 광림신학교 개교식도 28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광림교회와 연계가 있는 미국 웨슬리 신학교, 영국 옥스퍼드 선교 연구원, 한국 신학 교수진들을 통해 잠비아 광림신학교 교육 과정이 계획되었고 현재는 웨슬리 신학교 교수진들과 커리큘럼을 통해 잠비아 광림신학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데, 잠비아에서 학생들이 센터 안에 있는 교육관에 모여 스크린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나라별 시차로 인해 새벽강의를 포기하고 잠비아 신학생들을 위해 열정으로 강의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학생들의 열의와 가르침과 배움의 연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잠비아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미신과 주술적인 토속 신앙에서 신학 박사님들의 가르침의 자극과 타 문화권의 선교사와의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서로가 박수갈채로 수업을 마무리할 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사랑의 현상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어린이 교육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로 정식 등록이 되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와 창의 미술로 잠비아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잠비아 광림신학교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목회자 양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잠비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광림어린이학교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되도록 기도합니다.

2023년 경조총회

12월 2일, 각 선교구 경조위원들 한 해 결산하는 감사의 자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경조위원회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는 지난 12월 2일(토) 오후 4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 경조총회를 개최했다.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교구 경조회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경조위원회 사업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됐다.

제1부 예배는 조항장 목사(경조위원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기연 장로(남신교회총연합회장)의 기도와 이화열 목사(여선교회총연합회장)의 성경 봉독(눅 19:1~9)이 있었다.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는 '세리

장 삭개오를 변화시킨 돌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어찌 '할 수 없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광림 경조위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돌무화과나무의 역할을 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배경호 장로가 진행한 제2부 보고와 특별 순서에서는 2023년 경조위원회 활동 상황이 보고되었다. 경조사는 총 720건이 발생했고, 그 중에 장례가 243건, 결혼과 문병, 개업,

불우이웃 돕기 등이 477건 집행되었다. 경조 후원금은 교회 재정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각 교구별 경조회에서 지출되었으며, 경조사 교회 버스 지원은 39회가 있었다. 감람동산에는 현재 1,085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금년에 42기가 안장되었다. 경조위원회에서는 장례 및 운구 지원, 감람동산 환경 정화 등을 지원하였다.

제3부 애잔에서는 일 년 동안 수고한 경조위원들이 식사를 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친교를 나누었다.

배경호 장로는 "지난 일 년 동안 많은 경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위원들이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돌무화과나무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경조위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례 및 감람동산에 관한 상담은 총무 조항장 목사(02-2056-5379, 010-5218-4453)에게 연락하면 광림경조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정순 기자

2023 하반기 목회세미나

창립 70주년의 반석 위에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2024년

교회 창립 70주년인 올 한 해 목회를 되돌아보고, 2024년 달려갈 비전과 방향성을 바라보는 <2023 하반기 목회세미나>가 12월 5일~7일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매해 2번, 8월과 12월에 진행되는 목회세미나는 본당 및 남·북·동탄성전 등 지교회의 모든 선교구와 부서, 기관의 교역자들과 외부기관에 파송된 교역자들과 총 80여 명이 모여 한 해의 목회를 점검하며, 내년 목회의 방향성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바르실래'를 예로 들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며, 보상의 마음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르실래와 같이

광림의 교역자들이 교회와 교우들을 섬길 것을 전했다.

특히 올해 70주년을 맞아 동탄광림교회, 잠비아광림미션센터를 봉헌하였고, 광림세미나하우스를 재단장함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이를 위해 헌신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목회 보고를 통해 아쉬웠던 모습을 점검하며, 내년에는 예배(주일예배, 저녁예배, 수요치유의 신학) 및 전도, 속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림의 권속이 될 것을 강조했다.

2024년 광림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는 교회"(엡

6:19~20)라는 표어를 비전으로 삼고, 모든 광림의 교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으로 충성하며 감당할 것을 기도하며 결단했다. 시대가 급변하여, 인구 감소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신앙 교육의 어려움 등, 당장의 어려운 현실이 교회와 마주하지만, 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함으로 창립 70주년의 반석 위에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시대가 될 것을 기대했다. 광림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우, 선교구와 부서와 기관이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지상 목사(문화홍보실)



12월 3일 주일 저녁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23회 선교구 성가제가 열렸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본당과 지교회 14개 선교구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성전에 가득 울려 퍼졌

제23회 선교구 성가제



다. 참가한 모든 선교구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고, 대상은 동탄광림교회, 금상 6선교구, 은상 9선교구, 동상은 2선교구가 수상했다. 선교구 성가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고, 모든 성도의 참여와 헌신이 빛나는 축제였다.



동탄광림교회 대상



부목사 특별 찬양



6선교구 금상



9선교구 은상



2선교구 동상



3선교구 인기상



1선교구 격려상



8선교구 격려상



광림남교회 2선교구 격려상



5선교구 장려상



광림남교회 1선교구 장려상



광림북교회 장려상



4선교구 소망상



7선교구 소망상



10선교구 소망상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41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 20:19~20)

예수가 부활한 그날 아침, 두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인 엠마오로 가는 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예수를 알고 있으며, 그를 믿고 따르던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온갖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낸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을까? 바로 그때,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말을 건넸다.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오?” 두 사람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모른단 말ियो?”

예수는 모른 척하며 그에 다시 물었다.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모른단 말ियो?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였소. 그런데 사흘 전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로마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받았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고 믿었소.”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였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했다는데……;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 보니 역시 시신이 없었소.”

두 사람의 말은 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것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언급한 모든 성경 구절을 짚어 주었다. 어느덧 그들은 엠마오에 도착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대로 길을 떠나려고 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면서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날 저녁, 예수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축복한 후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한 나그네가 예수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는 사라졌다. 두 사람은 감격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길에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소?”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일어나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열 명의 제자들과 그 친구



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주님께서 살아난 것은 사실이다!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다!”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가 빵을 떼어 줄 때 자신들이 알아본 일 등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처럼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영(靈, 유령)을 보는 줄로 알고 겁을 먹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말하였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여기 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여 주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기뻐서 믿기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말하였다. “여기에 먹을 것이 조금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에게 드렸다. 그러자 예수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었다.

이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해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 말대로 된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

▲ 의심하는 도마_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가 창에 찔린 그의 옆구리 상처를 손가락으로 찔러 보면서 확인하는 장면이다. 작품 속에는 어떤 소품이나 장소를 암시하는 배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만 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왼쪽에 있으며, 제자들은 그의 오른쪽에 모여 있다. 이들의 시선은 옆구리의 상처와 도마의 손가락을 향해 있다. 또한 강렬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로 쏟아지고 있지만, 반대편은 어둠 속 의심의 눈초리를 한 제자의 모습이 대비된다.

카라바조의 작품

▲ 엠마오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_루벤스의 작품

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내 이름으로 죄 사람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민족에게 선포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들은 첫 증인들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 자국을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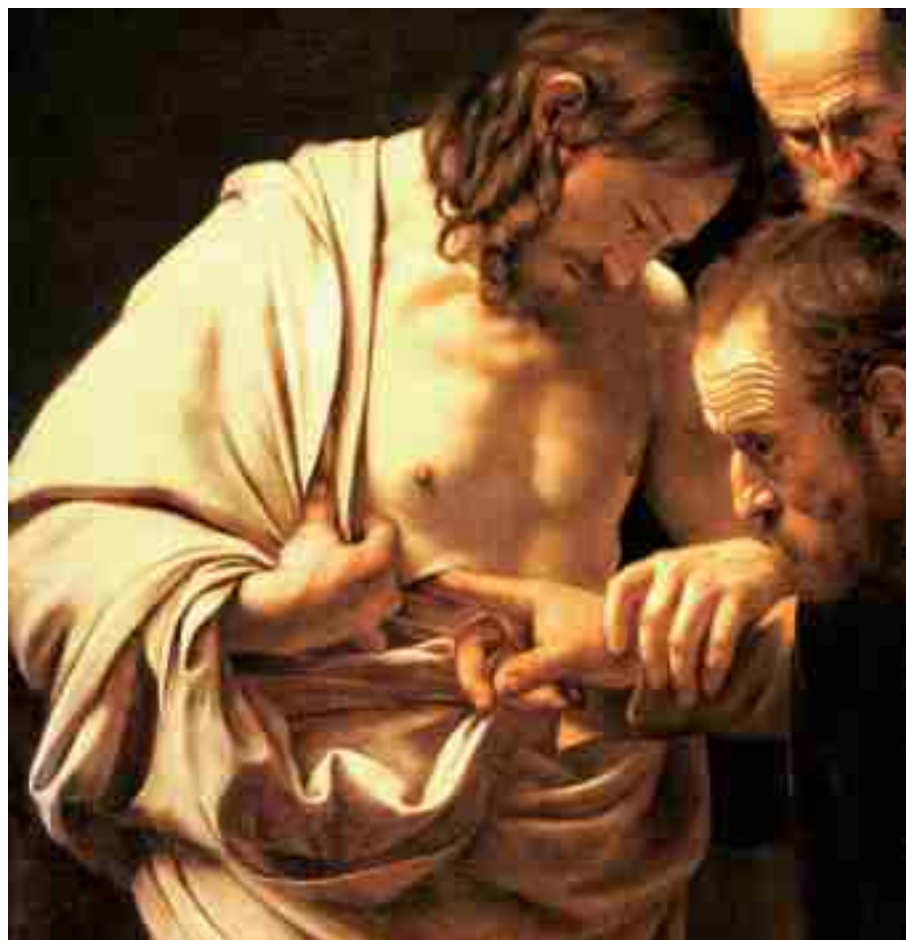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였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닫힌 문을 그대로 지나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다음, 예수는 도마를 향해 말하였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의 모습에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예수가 다시 말하였다. “너는 네 두 눈으로 나를 보았기에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다.”

광림뉴스레터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